

광주시, 인공지능 산업 이끌 '새싹기업' 돕는다

'AI 제품·서비스 제작·상용화' 참여 기업 모집 일자리 창출·AI 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여 기대

광주시가 인공지능(AI) 창업 초기 기업과 예비 창업자들의 성장을 돕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광주시는 1일 "인공지능 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AI (시)제품·서비스 제작 및 상용화 지원' 참여 기업과 인공지능 창업 활성화를 위한 'K-디지털챌린지: AI 창업 경진대회' 참가자를 오는 30일 까지 각각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과 함께 추진하는 AI 중심 산업 융합 집적 단지 조성 사업 가운데 하나로 진행됐다.

AI (시)제품·서비스 제작 지원 사업은 인공지능 시제품·서비스를 제작해 사업화를 희망하는 창업 7년 미만의 전국 창업 초기 기업을 대상으로 52개 안팎의 과제를 선정하고 과제 당 5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까지 총 39억원의 시제품 제작비를 지원한다.

상용화 지원 사업은 기존 AI 제품의 서비스 개선과 기능 향상을 희망하는 창업 초기 기업을 대상으로 15개 안팎의 과제를 선정, 과제당 1억원에서 최대 2억5천만원까지 총 23억원의 상용화 지원금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기업들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의 창업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기업들은 입주 지원과 AI 창업교육, 투자유치설명회(IR) 참가,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서비스 이용, 국제인공지능학술대회 참가 등을 지원받는다.

'K-디지털챌린지2024 AI 창업 경진대회' 참가 대상은 신규 사업자·법인 등록을 통해 창업이 가능한 2인 이상의 예비창업팀이다. 인공지능 기술 기반 창업, 사업화 계획에 대한 기술성, 시장성 등을 평가해 최종 10개 팀을 선정할 계획이다.

올해 인공지능 창업을 원하는 예비창업자나 AI (시)제품·서비스 제작 및 상용화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오는 30일까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누리집(<http://aicr-gkr.com>)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김용승 인공지능산업실장은 "역량 있는 기업이 비전을 실현하고 창의적 아이디어가 현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AI 기술을 개발하는 문턱을 낮춰 누구나 AI에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승 인공지능산업실장은 "역량 있는 기업이 비전을 실현하고 창의적 아이디어가 현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AI 기술을 개발하는 문턱을 낮춰 누구나 AI에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승 인공지능산업실장은 "역량 있는 기업이 비전을 실현하고 창의적 아이디어가 현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AI 기술을 개발하는 문턱을 낮춰 누구나 AI에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지역 상의, 미래비전 실현 '맞손'

국립의대 신설·첨단산업 육성 등 상생협약

전남도는 1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지역 상공회와 함께 국립의과대학 신설, 첨단산업 육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전남도의 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상생협약'을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영록 지사와 목포·여수·순천·광양·광주 등 5개 상공회 회장이 참석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미래 첨단산업 육성 산단 조성과 기회발전특구 선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외국인 근로자 여건 개선 ▲전남 국립의대 신설

효과가 기대된다.

김영록 지사는 "지역 상공회와 회장들이 굽적한 도정 현안을 풀어가는 데 힘과 지혜를 보태주고 함께 해주겠다고 하니 천군만마를 얻은 느낌"이라며 "도민이 행복하고 전남이 세계로도 약할 비전사업을 차질없이 원차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 5대 상공회 중 순천을 제외한 목포·여수·광양·광주 등 4개소의 회장이 올해 새롭게 취임해 자체 사업 구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날 회동에선 신규 취임을 축하하는 시간도 가졌다.

다. 그동안 전남도는 자체적으로 농공단지 대상 기업 맞춤형 특화지원사업 및 산학연 연계 연구개발 사업 등 다양한 기업 지원 사업을 추진, 타 산업단지에 비해 불리한 여건의 농공단지 입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했다.

또한 2019년부터 농공단지 일제 조사를 했다. 관리기본계획이 미수립된 농공단지(28개소) 시·군에 대해 향후 농공단지 입주 및 분정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하는 등 행정적 절차 이행에서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김대인 전남도 투자유치과장은 "전남의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데 청년 인구 유입이 중요하다"며 "노후 산업단지 조성은 청년친화적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농공단지 패키지 지원' 전남 4개소 선정

보성 미력·무안 일로·강진 마량·진도 고군 국비 214억 확보

전남도는 1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인 농공단지 패키지 지원사업에 보성 미력, 무안 일로, 강진 마량, 진도 고군 농공단지가 선정돼 국비 214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산업부가 주관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추진한 '농공단지 패키지지원사업'은 지난해 7월 정부에서 발표한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에서 제시된 사업이다. 기존에 추진하던 4개 핵심사업에 패키지화해 예산을 지원하는 등 농공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모든 사업을 연계 지원해 농공단지와 농공단지 주변 지역 활성화 시너지를 창출하는 사

업이다.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된 전남 4개 농공단지에는 2027년까지 국비 214억원, 도비 27억원을 포함한 지방비 106억원 등 총 300억원이 투입된다.

보성 미력은 청년문화센터 건립과 아름다운 거리 조성, 무안 일로는 청년문화센터 건립과 노후 공장 청년 친화 리뉴얼 사업을 진행한다. 강진 마량은 청년문화센터 건립, 아름다운 거리 조성, 노후 공장 청년 친화 리뉴얼, 진도 고군은 청년문화센터 건립과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할 예정이다.

열악한 농공단지의 환경 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 그동안 전남도는 자체적으로 농공단지 대상 기업 맞춤형 특화지원사업 및 산학연 연계 연구개발 사업 등 다양한 기업 지원 사업을 추진, 타 산업단지에 비해 불리한 여건의 농공단지 입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했다.

또한 2019년부터 농공단지 일제 조사를 했다. 관리기본계획이 미수립된 농공단지(28개소) 시·군에 대해 향후 농공단지 입주 및 분정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하는 등 행정적 절차 이행에서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김대인 전남도 투자유치과장은 "전남의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데 청년 인구 유입이 중요하다"며 "노후 산업단지 조성은 청년친화적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민방위 장비 검열 1일 광주 북구청 지하 민방위 비축물자 창고에서 민방위팀 직원들이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한 대응 구축을 위해 화생방 방독면과 응급세트 등 민방위 장비를 검열하고 있다. 북구는 이번주 내 지역·직장 민방위대 30개소를 대상으로 운영 실태와 장비 검열을 실시한다. /김애리 기자

市, 시민주도형 안전마을 수행기관 선정

산수2동 호랑꼬두메·양림동·신용동 안전마을협의체 등 3곳

광주시는 1일 "동구 산수2동 호랑꼬두메, 남구 양림동, 북구 신용동 안전마을협의체 등 3곳을 '2024년 시민주도형 안전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수행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민주도형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은 '언제 어디서나 안전도시 광주'를 실현하기 위해 시민이 주체가 돼 삶의 일상 공간인 마을부터 안전 취약 분야를 개선하고 안전한 공동체를 만드는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에는 월곡1동과 동명동 안전마을협의체 등 2개 안전마을이 사업을 진행했다.

올해는 서류 심사에 이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 ▲산수2동 호랑꼬두메 안전마을협의체의 '함께 만들어요! The 안전한 호랑꼬두메 마을 만들기' ▲양림동 주민협의체의 '함께 만들어 가는 양림 안전마을 첫 걸음!' ▲신용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신용동 안전마을 만들기 자율적 방법 모델 구축' 등 3개 프로젝트를 선정했다.

광주시는 3곳의 마을에 각 1천800만원의 지원금을 전달하고 안전 분야 전문가의 1대1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1면 '교수 출사표'서 계속

이와 관련, 한 대학병원 교수는 "담화문 발표 소식을 들었을 때까지 해도 '협의 여지를 주나'라는 기대를 했으나 내용을 듣고 나니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데 지나지 않았다"며 "이렇게 되면 의사들도 강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어 의정 갈등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정부의 의료계의 출구없는 대치에 환자들과 보호자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다.

전남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한 환자는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가 한 달을 넘어가고 있는데,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교수들이 근무 시간마저 축소하면 진료는 또 차질을 빚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언제까지 이 상황을 견뎌야 하는 것이냐"고 울분을 토로했다.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사랑받는 廣告인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 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립니다.

광고문의 및 출점접수
▶광고국/☎ 650-2099
650-2071~2
F. 650-2016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의
650-2022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공사대금, 장비대금, 전세금, 부도어음, 빌려준돈, 투자금, 약정금, 임대료, 구상금

돈 받아 드립니다

1) [월세110% 돈덩이매물] 대지3,170㎡ 원룸60개
주인전원주택165㎡ 보4,500 월세1,480 매가14억3,800

2) [50%급처분] 신세계 백화점 6차선 대로변1,650㎡
급매 3.3㎡ 당2,000만원 주상복합최적

3) [재개발예정정문앞] 중흥동 대249㎡ 3층건물
급매5억8,000 시세50%급매물입니다

급히구합니다 = 조건맞으면 바로 계약합니다

상가빌딩, 상가주택, 모텔, 가든, 나대지
야영장, 창고부지, 물류센터부지 등등 찾고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상담

1976년부터 우리지역에서 발생하는 기아, 미아, 미혼모 아동 및 결손아동을 일시보호 후 친부모를 찾아주거나 국내입양 상담으로 양부모를 결연하여 아동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 주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입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후회 및 자원봉사
광주영아일시보호소

상담 062)222-1095, 1096

대명OA

취/급/품/목

- 복사기, 컴퓨터, FAX, 레이저 및 잉크젯 프린터, 전산소모품, 레이저(토너/드럼), 카트리지, 각종 잉크류, 복사용지, 팩스용지, 판매, 임대, A/S

T.375-5880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인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 주세요!!
010-5679-0990, 062)714-2846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개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